

“인터넷 과대광고 제재 지부 재량에”  
전국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 열어

치과병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제재의 건과 관련 각 지 부별로 그 제재의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치험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치과병 의원 인 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 제재에 있어 적정선까지는 각 지부의 재 량에 맡기기로 했으며 최대한 규제보다는 계도의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되 이에 협조치 않을 시에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치험 정보통신이사회는 지난 2월 23일 힐튼호텔 토파즈 룸에서 각 지부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보통신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치과병 의원 인터넷 홈페이 지 과대광고 제재의 건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올라 각 지부 정보통신 이사들의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그 결과 서울지부를 포함 기타 몇몇 지부에서는 치과병 의원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와 관련

인터넷 제재 가이드라인에 맞게 홈페이지를 운영해 달라는 홍보를 하고 잘못되지 않게 유도하는 차원의 방법만을 쓰고 있을 뿐 실제 적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지부의 경우는 모 치과가 행정기관에 고발된 경우도 있으며 광주지부의 경우는 치과병 의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과대광고를 했을 경우 광 주의 무등치의보에 사과문안을 올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광식 치험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동계올림픽 판 정과 관련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IOC 홈페이지에 대거 접속, 서 버를 다운시켰을 정도로 정보통신분야가 놀라울 만큼 발전해 이제 사회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 춰 치험 및 각 지부 정보통신위원의 역할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비시험제도 실시 확정  
의료법개정안 국회통과

예비시험제와 전문치의제 1차 기관표방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 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인 처벌조항 중 모호한 부분만 일부 수정한 채 보건복지위원회의안을 그대로 반 영했다.

예비시험제의 경우 외국 유학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예비시험제를 도입하되 규정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기로 함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본격 실시되게 됐다.

또 한의사시험회와 공동 추진했던 전문치의^한의제 전문과목 1차 기관 표방금지제는 일단 7년간인 2008년 12월31일까지만 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치험은 숙원 사업인 외국치대졸업생 예비시험제와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나 전문치의제 1차기관 표방금지에 대한 법 적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 안에는 의료인을 옥죄고 치과계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0명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과목에 치과가 빠졌고, 의사가 진료 비를 하위청구함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이를 결격사유 로 추가, 의료기관 개설하기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 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의료법 등을 위반, 금고이상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했다.

이밖에도 의료법 정치처분에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도 2천만원 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했다.

APDCC서 장애인 실천윤리 선포  
장애인 진료 중요성 세계에 알려

치험은 오는 4월 3일 있을 아태 총회 개회식에서 장애인먼저 치 과인 실천윤리강령을 선포한다.

장애인먼저 치과인 실천윤리강령은 일전에 어떠한 의료계단체에 서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아태 기간중 이를 선포함으로써 장애인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전 세계 의료인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포될 장애인먼저 치과인 실천윤리강령은 치과에 장애인 환자 내원 시 치과의사와 치우생사 등 치과 근무자들이 지켜야할 행동들을 정리한 것으로 강령은 ▲인권 ▲서비스 ▲진료 ▲시설 ▲예방과 구강관리 ▲치과의료인의 노력 총 6가지로 구분 되었으며 이 6가지 강령은 또 각각의 세부 실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치험은 이번 아태 총회 기간에 장애인먼저 치과인 실천윤리 강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실천윤리강령 지침서를 전국 1만여개 치 과병의원에 배포할 예정으로 회원들에게 장애인 치과 진료의 필요 성을 알리고 장애인 치과진료에 참여를 독려,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는 장애인먼저 치과인 실천윤리강령은 아태 총회 기간 중에 개설될 예정인 조선족교회 치과 진료소를 개설과 더불어 Dream, Devotion & Dentistry를 주제로 치러지는 아태 서울 총회가 진정한 Devotion(봉사)의 의미를 갖춘 총회로 거듭나는데 일 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